

외대학보 843호 비평

그의 죽음을 알릴 수 있다면



한 연예인이 아랫발 누구와 함께 숨을 마셨다는 것이 뉴스거리가 되는 세상이다. 어떤가? 한편같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남다른 전국 각지에서 300명이 찾아와 축례식이 치뤄졌다. 세상은 그의 죽음을 외면했다. 세상은, 늘 어땠나 그랬다. 여중생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고, 한미 관계의 부당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던 고 재정을 여중생 범파와 상황실 부실장, 그가 지난 1년 신로에서 죽음을 맞았다고. 그의 죽음에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세상은, 너무 넓다면 고인의 모교인 학내에서도 그의 죽음을 알리고 싶었다. 외대학보 840호 사회면은 이러한 의도로 기획했다. 처음 그의 가족은 자리를 찾으려 했을 때, 기자たち 처음 들었던 말은 “왜 이제 왔느냐?”는 안타까운 질문이었다. 그의 삶의 본질을 생각해 기자들의 말을 들으며 외대학보 기자가 아닌, 고인의 후배로서 진심으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웠다. 그의 친구, 동료, 선배들은 눈물을 흘릴 시간이 많았다. 그의 죽음에 제기되는 의혹들을 해결하기 위해 뛰어들어나와 한다고 했다. 미안이, 효순이를 죽인자 미군장성과 운전병이 회의 결과를 받고 미국으로 돌아가던 날 고인은 미안이, 효순이를 두 번 죽여버려 후회하며 울고 말았다. 그런 그를 우리 사회는 두 번 죄고 있다. 어제는 단순 기자 사고가 아닐 수 있는 그의 죽음을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자신이 빼놓은 누명을 씌우고 있다. 살아남친 고인의 모습을 그려기에 이번 기회에 기사의 기사는 많이 부족했다. 어떤 말로도 어떤 글로도 그의 살아남친 모습을 기록하는 사람에게 이번 기사는 부족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안내에 그의 죽음을 기리고, 그의 죽음의 의혹을 규명하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생기면 부족함을 그것으로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다.

덧붙여, 843호 1면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 정·부의 사진이 외대학보 사진이 아닌 것과, 4.5면 주제기획에 유비나 오타였지 않느냐는 점을 시도 드린다. 앞으로 기사를 세밀한 부분까지만 치우쳐서 기사를 만들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또한 개인과 과 학생회 선거 결과가 짜짜게 된 점도 함께 사랑 드린다.

비쁘게 달려온 1년의 마지막에 다르게 있다. 외대학보도 이번 844호를 끝으로 이번해의 신문은 미리하게 된다. 부족한 점이 많은 외대학보지만 무관하다. 외대학보 독자를 위해 빌로 뛰어들고 밟고 싶다. 다음에도 외대학보 독자들의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도서관의 그녀에게 말 걸기

- 해비하기 -

• 잘 사는 게 중요하지 2003.	
2003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단지 속자에 불과하다.	
- 김재원-	
• 빛에서 벗어나고 싶어~~~	
- 신용불량자-	
• 엄장커플 멀뚱시키기	
- 무작슬로부대-	
• 법대, 사회대 단독 건물 설립 추진!!	
- 법대, 사회대 크로스!!-	
• 풀업 좀 했으면 좋겠네...	
- 10학기-	
• 경희대 외대 체육대학회 추진	
제목 : 2003년이 가기 전에 해야 할 일	
• 취업!!	
- 경희대생-	
• 배수, 박조 연합-	
• 36.5도 인간난로가 필요해!!	
- 눈사람-	
• 과방 청소 합시다.	
• 과회장-	
• 담배를 꼭 끊어야 하는데...	
- 폐가 아파-	
• 성격순화하기	
- 퀸екс-	
• 재단 공영화	
- 외대인 14000명-	

후사의 소리

글을 받습니다

사자·민족·민족·교생·식생·식민·모두 / 수제·세인·일음 / 웨주 2003년 12월 4일 내내 / 미간·해 / 강교재 사용
투고면법: 웹기사(기술/영화/기획/2층) 방문 또는 전자우편 oochopress@hanmail.net
고객님을 위한 공지사항은 부록이나 바라는 점을 예상하던 눈으로 비판해 주십시오.
기고하신 분께는 소정의 보너스를 드립니다.

선거세칙위의 선관위?

대학, 사회 소수자까지 끌어안아야

2004년을 준비하는 총학생회 선거를 치르면서 후보자들 간의 비방, 풍자, 폭언과 예산의 특별 조사에 보니 선본 방송·인터넷 IP 및 MAC address를 기록한 후 표를 투표할 것이다. 누가 표를 옮겼든 그 비밀은 물론 표를 투표한 사람의 컴퓨터에서 나온다.

1번 후보의 자질 문제와 관련한 시도와 공과대학을 비하하는 발언과 그에 따른 사과문,

그리고 번 후보자에 관련한 학교·축구·선거·개입·건 이것이 빅보이들로 들어온 선거와 관련 일이다.

1번 정 후보자와 함께 음주시고 노래를 하여 경찰이 잡았는데 아직 좌석 놔워지지 않고 있는 풀린드라이브 대로에서 그 대로를 불인 시점이 경찰로 환장 소장되었는데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 풀린드라이브와 회장이 경찰로 환장 소에서 밤낮으로 일관하고 같은 날 고인은 미안이, 효순이를 두 번 죽여버려 후회하며 울고 말았다. 그런 그를 우리 사회는 두 번 죄고 있다. 어제는 단순 기자 사고가 아닐 수 있는 그의 죽음을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자신이 빼놓은 누명을 씌우고 있다. 살아남친 고인의 모습을 그려기에 이번 기회에 기사의 기사는 많이 부족했다. 어떤 말로도 어떤 글로도 그의 살아남친 모습을 기록하는 사람에게 이번 기사는 부족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안내에 그의 죽음을 기리고, 그의 죽음의 의혹을 규명하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생기면 부족함을 그것으로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다.

덧붙여, 843호 1면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 정·부의 사진이 외대학보 사진이 아닌 것과, 4.5면 주제기획에 유비나 오타였지 않느냐는 점을 시도 드린다. 앞으로 기사를 세밀한 부분까지만 치우쳐서 기사를 만들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또한 개인과 과 학생회 선거 결과가 짜짜게 된 점도 함께 사랑 드린다.

비쁘게 달려온 1년의 마지막에 다르게 있다. 외대학보도 이번 844호를 끝으로 이번해의 신문은 미리하게 된다. 부족한 점이 많은 외대학보지만 무관하다. 외대학보 독자를 위해 빌로 뛰어들고 밟고 싶다. 다음에도 외대학보 독자들의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보니, 학생회장 IP였고 선관위와 1, 2번 선본에 대해 보니 선본 방송·인터넷 IP 및 MAC address를 기록한 후 표를 투표할 것이다. 하지마 선본 방송·인터넷 IP 혹은 MAC address를 한 것이다. 당시에는 선본 방송·인터넷 IP 혹은 MAC address를 소정의 표를 투표하는 것이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었고 선본 방송·인터넷 IP 혹은 MAC address를 한 것이다. 아니면 표를 미처하고 복학하는데 나서부터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 아니면 외내에 내에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없어졌는지를 모른지 모를지 알 수 없다.

선거와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에 관한 신뢰와 입장을 선거가 끝난 후에 4대 학생회 대회를 다음에 개최하는 시점에 보이는 것인을 믿어야 하는 일반 학생에게

개인적인 편파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학생회 선거가 수간주 이어져왔지만 세습은 그대로이다. 어떤 보복도 없고 그때마다 때마다 투표율이 10%가 넘는다. 이 과정된 행동으로 인해 1번 선본에서 일은 이미 손에 관한 어떤 언급도 신뢰와에서는 하지 않았다. 1번 선본에 관련한 학교 측의 선거기획에 관한 1번 후보자의 사과문과 선관위 공보문이 불었다. 하지만 2번 후보자의 현수막 개수 관련한 선거 세칙 위반은 어떤 사과문, 공고문도 끌어내렸다. 새로 만들어진 25대 총학생회는 일단 학우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많은 학우들이 취업과 학점관리에 많은 비중을 두면서 혹은 학우들은 점수를 통하여 학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마 선본 방송·인터넷 IP 혹은 MAC address를 한 것이다. 그들이 한 번에 있어 절망감을 주를 있을 것이다. 자신을 드러내면 병자 취임 받는 현실을 하기만 이런 소외된 사람들은 까마득이 될 수 있어서는 곳이 대체해야 하지 않을까? 입학 때 만난 대로에 대한 느낌.

얼마전에 흥천에서 커미아웃을 해 퇴짜를 친 사건이 있었다. 그 이후 공영방송에서 다시 계약을 맺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할 수 없었다. 방송에 나올 수 없는 신분이 된 것이다. 이 사건은 한 국사회 내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를 확산하는 것에 주목하고 할 수 있는데 그로 비로 동성애자들은 비 정상이라는 관점이다. 과연 동성애자에게는 비정상적인 민족적인 혹은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의 듯을 거르는 것

예전에 처음 새내기로 학교에 들어왔을 때 등이 중에 특이한 곳이 있었다. 그건 만기이라 고 하는 이름의 등이었는데 바로 등성애자를 인정하는 나리가 있다. 특히 대법원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는 등성애자의 결혼을 인정하기까지 하고 그 경유권 역시 역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나 다른 유럽국에서는 등성애자의 부녀자들의 여러 가지 기본 인권(결혼권 포함)을 찾기 위한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 그들은 소외당하는 한 이유인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친된 삶을 이어가고 있다. 보면 자신의 즐은 것의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시설을 찾았을 때 하면 사회로부터 겨우 소외당하고 미는 존재였다. 과연 한국 사회 내에서 그들이 역시 한 완성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동성애자들은 AIDS균에 감염될 수 있다. “동성애자들은 AIDS균에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마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고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것을 물을 것이다.

여기에는 흥천에서 커미아웃을 해 퇴짜를 친 사건이 있었다. 그 이후 공영방송에서 다시 계약을 맺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할 수 없었다. 방송에 나올 수 없는 신분이 된 것이다. 이 사건은 한 국사회 내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는 그 자체로 서슴지 않고 한다.

그리면 중국의 주민은 곧 중국 동북지역에 위치했던 고구려사를 중국시민으로 인식하는 것과 같은 차이를 발견하였다. 다만 1900년대까지는 만주지역의 경제가 인정되어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뿐이다.

하지만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 사회가 등장하고 북한이 세속화하기 위해 블린다면, 만주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고구려사를 중국시로 임명시키면서, 만주에 대한 역사적 고고학을 강화함으로써 조선족의 동을 예방하고, 북한의 유통적 상황이나 남북통일 이후의 국경분쟁에 대비하겠다는 국

일까? 그리고 그들은 사회 내에서는 배척받아 미방한 존재들인가?

우리나라에서는 등성애에 문제가 용인되지 않는 반면 일부 유럽국에서는 등성애자를 인정하는 나리가 있다. 특히 대법원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는 등성애자의 결혼을 인정하기까지 하고 그 경유권 역시 역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나 다른 유럽국에서는 등성애자의 부녀자들의 여러 가지 기본 인권(결혼권 포함)을 찾기 위한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 그들은 소외당하는 한 이유인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친된 삶을 이어가고 있다. 보면 자신의 즐은 것의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시설을 찾았을 때 하면 사회로부터 겨우 소외당하고 미는 존재였다. 과연 한국 사회 내에서 그들이 역시 한 완성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동성애자들은 AIDS균에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마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고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것을 물을 것이다.

여기에는 흥천에서 커미아웃을 해 퇴짜를 친 사건이 있었다. 그 이후 공영방송에서 다시 계약을 맺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할 수 없었다. 방송에 나올 수 없는 신분이 된 것이다. 이 사건은 한 국사회 내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는 그 자체로 서슴지 않고 한다.

그리면 중국의 주민은 곧 중국 동북지역에 위치했던 고구려사를 고구려 침략을 중국의 통일전쟁이나 당시에 미봉화까지 한중 심야에 펼쳤던 양천도 이화희 고구려사까지 중국시로 편입하기 위해 북한지역이 중국의 고양영토였다

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 사회가 등장하고 북한이 세속화하기 위해 블린다면, 만주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고구려사를 중국시로 임명시키면서, 만주에 대한 역사적 고고학을 강화함으로써 조선족의 동을 예방하고, 북한의 유통적 상황이나 남북통일 이후의 국경분쟁에 대비하겠다는 국

가장락을 수립했다.

이처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철저히 정치적 목적으로 비롯된 만큼 학문적 논거가 약한 데 아니고 극端으로 기록 차 있다. 경험 면에서 우리 조선인 고구려인 중국 한족(漢族)의 한 경고라고 주장을 하는 하면, 수 백년이나 당 대종제의 고구려 침략을 중국의 통일전쟁이나 당시에 미봉화까지 한중 심야에 펼쳤던 양천도 이화희 고구려사까지 중국시로 편입하기 위해 북한지역이 중국의 고양영토였다

는 주장이다. 그리고 북한의 주민은 곧 북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들이 한 번에 블린다면 그들이 한 번에 블린 것이다. 물론 지금 대회에 학생들은 밭 등에 블리거나 떠나거나 하는 곳이 대체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 대학의 한구사 교육은 이미 오래 전에 무너지고 이제는 중등학교에서도 한국사가 선택과목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어서고서도 우리 역사가 온전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방지하고자 제대로 내용이 있는 책이나 교재를 출판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그들이 한 번에 블린 것이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방지하고자 제대로 내용이 있는 책이나 교재를 출판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그들이 한 번에 블린 것이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방지하고자 제대로 내용이 있는 책이나 교재를 출판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그들이 한 번에 블린 것이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방지하고자 제대로 내용이 있는 책이나 교재를 출판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그들이 한 번에 블린 것이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방지하고자 제대로 내용이 있는 책이나 교재를 출판하는 것은 물론이다.

한국 속의 중국 고려 중국센터

1월 2일(금) 개장

고려 중국 센터가 북경에 설립한
중화고려대학에서도2004년부터 한국 학생 편입 가능!
북경에도 학원 개설 - 기숙사 완비

왜 중국어 학원

1위인가?

금년도 H.S.K 고급(9-11급)

합격 100명 육박!

■ 매월 마지막 주는

전 과정 무료 강강이

(11월 ~ 25, 26일)

가능하니

듣고 평가하세요

기초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단계별 학습

▶ 매일, 격일, 주말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

▶ 왕초보반부터 고급반까지 체계적 단계

▶ 한·중 합동 강의로 회화와 문법이 자연스럽게

중국인 선생과 부담없이 자연스런 회화 시간

▶ 언제, 어느 시간에도 O.K.

※ 중국어 경시 대회-대학부 전분야 석권

고등부 금상

HSK입문, 초중등, 고등대비 수준별 맞춤 수업

▶ 타 학원 HSK 강사님들께 특별 할인!

▶ 9-11급 - 편집자, 리간, 티엔지에, 위하이평선생

6-8급 - 김재환, 한원시엔, 성기은 선생

4-6급 - 황하이위에, 문정아, 김재환, 조준형 선생

일반 과정

HSK 과정

회화 과정

특별 과정

무료특강, 300마디 클리닉, 광동어반

▶ 매일 1~2시

김진호, 문미선, 홍상욱 강사의 (무료특강)

▶ <무작정 따라하기> 교재 판매 전국 1위

송재복 강사의 300마디 클리닉

▶ 광동어 반 개설

iHufsan 인터넷 외대학보 iHUFSan(아이홉산)

www.ihufsan.com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iHUFSan website. The header includes the site's name and URL.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large image of a person's face and several columns of text. On the left side, there is a sidebar with various links and sections like '기사검색', '인기 기사', 'Section' (with categories like '대학', '영화', '언론', '책마을'), '생활정보' (with '아이홉산당역' and '미주의식단'), '기사판' (with '자유게시판', '복지마자보', '주제토플방', '사간방고', 'Q&A'), and '기사쓰기'/'기사펴보'. The right side contains a large block of text about the website's purpose and history.

왜 인터넷신문을 창간하려하는가?

김태형(외대학보 53기)

인터넷신문이 제기되는 이유?

대학신문은 읽히지 않는다. 여타의 문제들을 지적할 순 있으나 가장 단적인 것은 대중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다. '읽히는 것'은 신문의 존재이유이며, '읽히는 신문을 만드는 것'은 기자의 존재이유이나, 전국적으로 대학신문(사)와 기자는 존재이유를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위협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터넷 신문은 이런 고민 속에서 출발한다. 왜 읽히지 않는가?

현재의 대학신문은 열려 있지 않다. 가장 진보적이고 열려 있어야 할 대학신문(사) 기자들이 가장 보수적인 체계와 폐쇄적인 편집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학생운동의 위기와 대학신문의 위기는 동시에 우리에게 안겨졌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 열린 자세로 더 진보적인 자세로 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그런식의 방어적인 태도는 우리를 좀 더 좁다랗고 빠져 나오기 힘든 골목으로 내몰았다. 이런 골목길을 빠져 나오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럼, 왜 인터넷 신문인가?

대학 신문(사)의 혁신은 지면과 매체형태의 혁신 속에서 이뤄질 수 있다. 기자만 기사를 독점하는 형태의 인쇄매체가 아니라, 외대인 전체가 기자가 될 수 있는 쌍방향 매체를 선택함으로서, 기획생산 구조를 혁신함으로서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기간 제기됐던 폐쇄성과 보수성은 조금씩 붕괴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노력 없이 자연적인 혁신이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지속적인 치열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실험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기자 개개인의 의지와 노력보다는 외대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애정에 달려있다.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고 도전하는 자에 의해 개척된다. 자, 이제 시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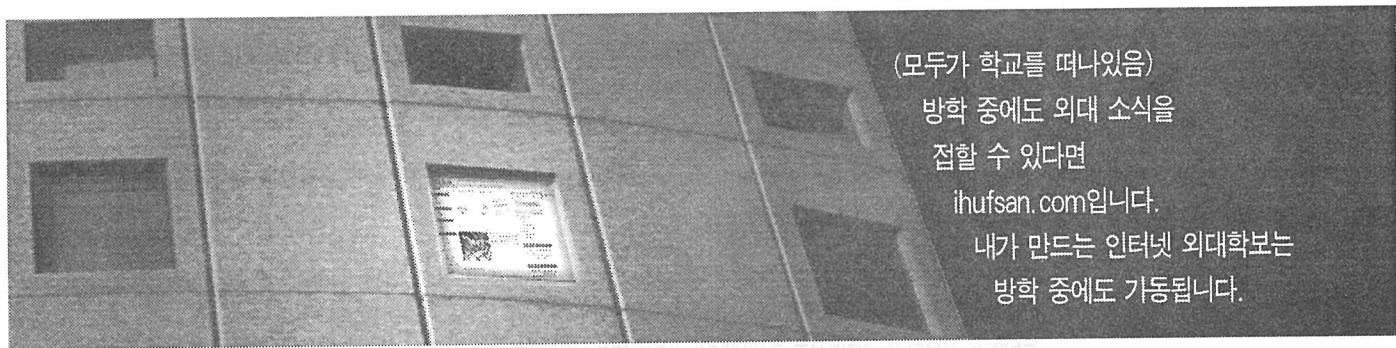
(모두가 학교를 떠나있음)

방학 중에도 외대 소식을

접할 수 있다면

ihufsan.com입니다.

내가 만드는 인터넷 외대학보는
방학 중에도 가동됩니다.



●● [조성완의 마인에서 모젤까지] 나는 이렇게 교환학생이 되었다

나는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 특별히 준비 한 것은 없다. 다만 독어과에 입학했으니까 남들 보다 조금 더 독일어에 관심을 가졌을 뿐이다.

제대 후에 나의 형편없는 독일어 실력을 좀 향상 시켜보고자 아침 8시부터 한시간 가량 학교 시청각실에서 DW라는 독일어 위성 방송을 시청했다. 교환학생으로 독일에 가기까지 1년 동안 아침8시에 학교에 등교해서 그 방송을 시청했다. 처음에는 낯설게만 느껴지던 독일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근하게 들리게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자라 오면서 영어 환경에는 많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접할 때는 친숙함을 느끼지만 기타 외국어들을 접할 때는 생소함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나는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시청을 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주관하는 FLEX시험에 매번 응시했다. 나의 독일어 실력을 점검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교환학생 선발 FLEX시험 당일 날도 평소에 해 왔던 터라 별 부담 없이 보았다. 외대는 외국의 많은 우수 학교와 교류 협정을 맺고 있다. 그러한 협정은 우리 외대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학생들은 그러한 교류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찾아가는 것은 학생 자신의 뜻일 것이다.

교환학생의 가장 큰 장점은 휴학을 하지 않고 외국의 대학에서 그 나라의 말도 심도 있게 배우며 그 곳에서 이수한 학점을 외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학 4년의 생활 중 1년의 기간을 외국의 학생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외대의 장점이며, 특히 한해 40명의 교환학생을 파견하는 양캠퍼스 독어과와 독일어 교육과 학생들에게는 누구나 조금만 노력만 한다면 이러한 혜택의 기회는 타 과에 비해서 그 문이 크게 열려 있다.

괴테는 “외국어를 배우는 최선의 방법은 그 말이 쓰여지는 그 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에서 여러분들도 살아 있는 외국어를 배웠으면 한다.

독일 생활동안 나는 많은 독일 친구들과 독일 아저씨 아줌마들을 알게 되었다. 그들과 지금도 서신을 왕래하고 있으며 주말이면 메신저도 같이 한다. 그들 중 2명은 내년에 한국에 온다고 한다. 국제적인 친구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 또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열매 일 것이다.

여러분들도 외대의 교환학생의 좋은 프로그램을 누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조성완 기자 sungwancho@korea.com / 02년 11월 4일 18:37 ©2002 외대학보

●● [조성완의 마인에서 모젤까지] 무엇을 배우는지 알려주마

제가 있던 곳은 독일의 Wuerzburg라는 도시입니다. 우리 외대는 합부를 하고 제가 있던 도시에 학생들을 파견합니다. 우선 제가 있었던 뷔류츠부르크(한국식 발음임)를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신 분들은 2월말에 그곳에 가게 되어서 3월초에 반편성 고사를 치르시게 됩니다. 성적에 따라 중급반이나 초급반으로 나누어지며 3월 한달 동안 집중과정을 받고 4월부터 7월까지 본 수업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본 수업은 중급과 고급으로 나누어지며, 대부분의 학생은 중급반에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중급반에서는 중급독어, 듣기과정, 읽기과정, 지역학 과정에 대한 수업을 받게 되며 7월 중순쯤에는 학기말 시험을 치르시게 됩니다. 모든 수업은 100% 독일어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뷔류츠부르크 대학에 있는 거의 모든 유학 준비생들이 같이 수업에 동참합니다. 다시 말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수업을 받는거죠. 본 수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수업은 “중급독어”입니다. 한국에서 배운것과는 다른 고급문법을 배우면서 독일 대학 수업 이해에 필요한 기본 실력을 쌓으시게 됩니다. 중급독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정은 부수적인 과정이지만 외대 학생들에게는 학점과 연관되므로 다 같이 중요합니다.

2학기 때에는 9월 한 달간 DSH준비 과정이라는 일종의 독일대학입학 독어 시험 준비반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DSH는 독일대학에서 공부하려는 모든 외국인이 치러야 하는 일종의 토플입니다. 모든 문제가 주관식입니다.

9월 한달 간이 가장 힘든 기간이었던 같습니다. 10월초에 시험을 치르게 되며 그 시험에 합격 할 경우 독일 학부에 있는 수업을 들을 공식적인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외대 교환학생들은 1학기 때부터 학부수업을 들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말 그대로 교환학생이니까요. 하지만 학점의 부담감과 이해의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2학기 때 듣습니다. 2학기 때에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학과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대생들은 좋은 학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학점 따기가 쉬운 어학원 수업을 주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배우는 과정은, 고급독일어, 음성학, 지역학, 단어학(?)과 같은 과목입니다.

조성완 기자 sungwancho@korea.com / 02년 11월 10일 12:39 ©2002 외대학보

독일 교환학생 커리큘럼입니다. 다른나라로 파견되는 교환학생들도 이것과는 많이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해주시구요.

독일에서 공부하기-2편에서는 독일대학의 교육환경에 대해 써볼라고 합니다. 기대해주시라~

●● [한희숙의 문화읽기] 서태후의 절대권력, 옛 이야기만은 아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요즘 연일 보도되는 권력층의 비리와 부조리로 인해, 많은 '한국인'들이 이젠 아예 체병(滯病)을 앓고 있으리라. 거의 매일 울화가 치밀곤 하는 상황에서, 나에게 생긴 상념 중 하나… 청나라의 마지막 황후, 서태후를 떠올리곤 하는 것이다.

서태후를 생각하면 이화원(이허위엔)이 먼저 떠오른다. 이화원은 원래 금나라 때 행궁으로 건조됐는데 청나라 건륭제가 확장하였으며 뒤에 서태후가 대대적으로 개축하여 오늘의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이때 서태후가 해군 예산을 유용하여 이화원을 개축했기 때문에 청나라가 청일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이화원은 부지 290만 평방미터, 그 중 수면이 220만 평방미터이며, 호숫가를 따라 만들어진 기나긴 복도는 무려 무려 728m나 된다. 전당, 누각, 정자가 도합 3,000여칸으로 황제와 황후가 정치 활동을 하며 휴식, 유람하던 곳이다. 이화원의 70퍼센트를 차지하는 쿤밍후(昆明湖)는 인공으로 판 대형호수이고 거기서 나온 흙으로 역시 인공으로 조성한 산이 완쇼우산(萬壽山)이다. 이 곳은 북경관광을 할 때에 다른 일정을 제쳐놓고 하루정도 시간을 별도로 내어 구석구석을 감상하도록 권할 만큼 절경이라 한다. 거대한 인공호수에는 서태후가 만들었다는 대리석으로 된 배(요지부동)가 떠 있는데, 서태후는 여기에서 매일 달구경하는 연회를 즐겼다고 한다. 서태후의 이러한 신선놀음은, 조정은 물론 국토가 황폐해지고 백성이 도탄에 빠져 있는 중에도 계속되었다.

서태후 하면 화려한 보석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한다. 서태후는 보석에 대해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비취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어서 만져만 보아도 그 진가를 가려낼 수 있을 만큼 전문가였다고 한다. 그녀의 초상화는 그녀의 삶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비취와 진주로 머리 장식을 했으며, 비취 구슬과 진주를 매단 어깨 망토를 입었다. 손목에는 비취팔찌가 끼워져 있고, 손가락에는 비취 반지, 손톱에까지 비취 보호판을 달고 있다. 서태후는 자신의 식탁을 비취로 만든 접시, 컵, 젓가락들로 차리게 하였고, 비취로 만든 악기로 연주하게 하였다 한다. 그녀의 이러한 호화로운 삶은 거의 반세기 동안 계속되어, 국가적으로 빈곤과 분열을 더욱 심화시켰다.

서태후는 나라가 어지럽고 백성이 굶주릴 때, 이화원을 개축하여 신선놀음을 즐겼고, 최상의 비치를 끌어 모았으며, 최고의 미식가로 사는 등 절대권력을 이용하여 부귀영화를 맘껏 누렸다. 이러한 서태후의 호화로운 생활이 비판받아 마땅한 것은, 그 비용이 정당하게 자신의 노력으로 일군 것이 아니라, 혈변은 백성의 노역과 세금으로부터 착취한 것이라는 점에 있다. 이렇게 절대권력을 이용하여 호의호식하였던 사례는 왕정시대를 통하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절대권력을 가지고 그야말로 못할 '짓'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절대권력시대는 지나간 것인가. 이 시대에는 권력이 왕권(특권층)에만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확립되었는가. 민주주의에 눈 뜬 국민들이 반짝이는 두 눈으로 구석구석을 지켜보고 있는가. 시민의식이 살아 있는 네티즌의 날카로운 익명의 발언이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는가. 이제 제발 국민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국가 경제는 바닥에 떨어진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부귀영화만을 도모하는 자들, 자신의 권력을 휘둘러 힘없는 국민을 펍박하고 우롱하는 자들, 언론을 배후에서 조정하고 여론을 조작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자들, 이들은 반드시 그 죄 값을 받게 될 것이다. 이들이 권력 앞에 힘 없는 '민초(民草)'를 두려워 할 리 만무하겠지만, 그 보이지 않는 분노의 힘은 하늘에 닿고야 말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권력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들이 반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가치관은 흔들리고 만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땀흘려 일할 의욕을 상실하며, '기회만 되면' 한 몇 잡으려 할 것이다. 법망을 피해 돈을 벌려고 할 것이며, 다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적발될 경우, '재수가 없었다'고 한탄할 것이다.

뉴스를 보다 답답하여 채널을 돌려 버렸다. 다른 한편에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들려온다. 자신도 가난하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돋는 사람들, 부모 없는 아이를 몇 명씩 입양하여 친자식처럼 양육하는 사람들, 힘없고 억울한 사람을 위해 구명 운동을 하는 사람들, 장애인의 손발이 되어 사는 사람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빼곡이 들어서 묵묵히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이 어그러진 세상이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가 보다.

필자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ingan21.net

한희숙 기자 hshan@ingan21.net / 02년 5월 23일 15:36 ©2002 외대학보

[한희숙의 문화읽기]는 저 멀리 이국 땅에 동떨어져 있는 문화'이론'이 아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다양한 문화현상들이 우리주변 도처에서 우리의 친근한 말벗이 되고자 손짓해 온 것은 아닐지… 어쩌면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흥미로운 문화현상들이 일상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문화현상을 찾아 현재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한희숙 기자는 우리학교 강사로, 이번학기 '현대문화와 철학'을 강의하고 있다.

●● [황현의 취업일기] 자기소개서를 쓰며 – 타이틀이 아닌 그 사람

겨울이 다가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다들 전라도 말로 “기시기”한 기분을 느끼겠지만, 취업준비생은 기시기보다 저시기한 무언가를 더 느낄 겁니다.

요즘 취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작년보다 일자리는 많이 풀린 듯 싶은데, 서류전형 조차도 통과하기 힘든 것은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설에는 99년 후반기부터 00년도 초반기 취업대신 대학원을 선택한 많은 인원들이 풀려나와서 그런것도 있다고 하기도 하고, 내년 경기침체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올해안에!!”를 외치면서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취업이란 것이 항상 대학생활의 끝마무리에 놓여지는 만큼, 취업으로 대학생활 전반을 평가받는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그 찬란했던 봄의 햇살과, 밤새 술먹어도 힘들기보다는 즐겁기만 했던 시간들, 사람들과의 대화들속에 느꼈던 마음이 자라는 소리를.... 이것들은 자기소개서의 한줄로도 장식되지 못하는, 취업에 있어서는 “가치없는” 시간들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모 선배가 면접에서 “000씨는 대학생활동안 어떤 것을 얻었습니까? “라고 묻자 “수많은 동기, 선배 후배들과의 관계속에서 사람사이의 관계맺음에 대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라고 대답했다는군요...

그러자 면접관 왈 “그거 말구~~~~ 다른거 없어, 눈에 보이는 거 말야!!”

말하자면 눈으로 보여질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드러나지 못한 것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도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과거의 시간을 반추합니다. 그리고, 온갖 포장과 가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을 “눈에 보이는 경력”으로 바꾸기 위한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 자신을 학점과 토익 그리고 몇가지 자격증 타이틀로 증명해야 하는 어려운 시험..... 취업이 이런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그사람의 “전체”를 이해하며 일에 적합한 인재를 뽑아주는 장, 현재의 타이틀 보다는 가능성을 보아주는 장으로 되길 바랍니다.

그런 미래를 꿈꾸며, 저는 오늘도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황현 기자 redhcy@hanmail.net / 02년 11월 12일 19:22 ©2002 외대학보

제 꿈 이야기입니다.

꿈에 저는 어느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출근하다 길을 잃었습니다.

산신령이 나타나서 말하길

“삼성”이니 직장이니? “아닙니다.”

“LG가니 직장이니?” “아닙니다. 저는 그냥 중소기업 다니는데요”

“오호 정직한지고 너에게 50억 복권당첨을 주겠노라!!!”

그 순간 저는 잠에서 깼어요.... 그렇죠 복권당첨되면 취직이고 뭐고

그냥 공부나 하는 건데.....

노동력을 팔아서 먹고사는거, 결국 저도 “노동자”가 되는 것이겠지요...

빼속깊은 뽀띠 기질이 단지 자괴감을 불러 일으킬 뿐이네요.

준비않된 취업준비생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4학년의 고충,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황현의 취업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 [황현의 취업일기] Toeic damn it!!! – 토익공부와 영어공부

취업의 필수요건이라면 무엇이 있을까? 백이면 백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홀륭한 학점과 높은 공인어학성적!!! 이 두가지만 있다면 취업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지금의 상태를 보아하니, 이 두가지를 갖추고 도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내 경우는 이 영어란 놈이 항상 말썽이다. 외대생 답지 못하게 저조한 나의 토익성적은 항상 취업에 걸림돌이다.

나름대로 영어는 잘한다고 생각했다. 남들이 기피하는 원서로 교재를 삼아 읽었고 그걸로 공부하여도 큰 지장이 없었다. (물론 경제학 분야의 원서들은 단어가 그리 어렵지 않다.) 수능 외국어영역의 점수 역시 매우 좋았다. 근데 오늘날 왜 난 이모양이 되었는지 모를 지경이다.

나름대로 영어가 살길이니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하여 영어학습에 나섰다. 자,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시작했다.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뉴스를 무조건 하루 한시간 이상 들었으며, 길가다 외국인이 있으면, 아는척 하려고 노력했다. 근데 이것 또한 쉽지 않았다.

상황1. 외국인이 길에서 두리번거리고 있다.

나 : Hey, What's the problem?

외국인 : #%%^%##\$%\$%\$#

나 : Pardon?

그 밖에도 헤럴드 사설에는 한겨레에서도 볼 수 없었던 몇 가지 파격적인 문장이 있다. 몇 가지만 예를 더 들면 1) 밝혀진 대로, 미국의 외교관들의 방문의 목적은 약속을 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부시 행정부의 스타일에 전형을 보여 주듯 간단히 거만하게 명령하려고 간 것이다.(As it turned out, the U.S. envoy's visit was aimed not at making compromises but simply laying down the law, the trademark Bush administration style) 2) 우리는 북한이 몇 개의 핵 폭탄이 정권 안정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이해 한다(We understand the North might think a couple of atomic bombs would help guarantee the regime's security) 특히, 이 문장은 참으로 파격적인 문장이라고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북의 핵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이다. 필자 생각으로, 독자 분들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영자 신문은 사실 독자의 수도 적고 기사에 대해 활가활부 하는 사람도 없기에 가끔 과격한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글의 의도, 사건의 해결 방안, 미국을 바라 보는 관점의 차이에 하나 추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럼 북한의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지금 까지 쭉 읽어 내려 오신 독자 분들은 어린 아이 손 목비틀기보다 쉽게 예측 할 수 있듯이 타임즈는 반대하고 헤럴드지는 헛별 정책을 유지 해야 한다는 쪽이다. 헤럴드지는 또, 비록 정부가 북한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분노를 미국의 강경파 의원들에게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우리의 선택은 북한의 모험주의를 중지시키고 국제 사회로 끌어 들일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미국에게는 대화를 지속하라는 설득을 계속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경제적 지원을 고수하고 있고 화해, 협력의 정책을 지속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제적 지원이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에 사용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가장 큰 이유이다. 정부가 원조 정책을 지속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북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해서라도 그 감찰 위원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경제적 도움은 연기되어져야 한다. 평양의 핵무기 문제에 대한 약속 없이 지원은 이루어져선 안 된다. 이는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The Korea Times)

What is worrisome is the government's unwavering determination to nevertheless proceed with reconciliatory and cooperative projects, mostly concerning economic aid, as planned. Amid suspicions that Seoul's economic aid to Pyongyang might have been used for the develop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t is wrong for the government to continue the aid programs. In order to apply pressure for the North's renewed commitment to scrapping the nuclear arms project, all economic assistance should be suspended. There should be no compromising on the issue of Pyongyang's nuclear weapons because it could determine the survival of the nation. (The Korea Times)

현재, 미국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잊어 버린 것 같다. 왜냐하면 북한의 의도를 읽고 자신들의 첫 번째 과제인 이라크 문제에 대해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들은 워싱턴 보다도 더 공격적 성격의 정권이 될 수 있는 서울의 새로운 행정부가 정권을 차지하는 내년 봄이 될 때 까지 행동을 늦추려고 할지 모른다. 한국 정부는 평양의 이중적인 태도와 미국의 비협력적인 보수주의자들에 의한 마다툼에 완전히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단지 북한의 모험주의를 중지시키고 미국에게 대화를 지속하라는 설득을 하는 두 과제를 지속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남한은 북에게 어떤 환경, 이유에서건 전 겨레의 안전을 인질로 삼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남한은 워싱턴의 매파에게 귀를 열라고 설득해야 한다. (The Korea Herald)

The Seoul government might well feel betrayed by Pyongyang's double dealing as well as miffed by Washington's uncooperative conservatives. Still it has no other choice but to carry out the dual tasks of stopping the North's adventurism, while persuading America to continue dialogue. Seoul should be able to tell Pyongyang to stop taking the security of its compatriot's hostage for whatever reason and under whatever circumstances. Only then could the South persuade the hawks in Washington to listen (The Korea Herald)

필자 생각으로 이 헤럴드와 타임즈의 사설 차이가 현 한국 정부가 북 핵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 양분된 국민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결국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가 미국과 손잡고 북한을 압박하는 길이라면, 하나는 다소 힘들겠지만 미, 북 간에 대등한 조정자로서의 위치를 확립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 자존심 하나로 50년을 버텨온 북한의 행동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일번 행동이 쉽게 약발이 들어 갈 것 같지 않은 것이 솔직한 생각이다. 정부의 현명한 외교술을 기대해 본다.

●● ‘최규선게이트’와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민주당 대선후보 노무현의 정권계승 위혜선, 김 대통령이 임기내 아들문제 말끔히 처리해야

4월 27일 서울의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마지막 경선대회에서 노무현 후보가 정동영 후보를 꺾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나는 투표장 입구에서 노무현 후보와 악수를 나누는 영광을 누렸다. 정동영 후보와는 지난 99년 외국어대 초청강연에서 악수를 나눈 바 있어 나는 두 명의 민주당 대선후보와 모두 손을 잡아 본 자랑거리가 생기게 되었다.

후보수락연설에서 노무현은 ‘통합’과 ‘개혁’, 이 두 가지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노무현, 상식 혹은 희망>이라는 인물평전을 통해 내가 그의 신념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그가 정치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소신있는 행동’이며, 집권시 일차적 과제로 생각하는 것이 ‘지역분열의 타파’라는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이 제시한 비전에는 바로 이러한 그의 신념이 그대로 녹아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3월 중 출발된 ‘노무현 바람(노풍)’이 대선까지 이어져,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감정의 해소와 이를 통한 국민적 통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런데 4월 달 ‘최규선게이트’가 터지면서 노무현 대통령 탄생에 적신호가 켜지고 말았다.

최규선 게이트

‘게이트’란 무엇인가? 게이트란 ‘정치권력이 연루된 부정비리 사건’을 통칭해서 가리키는 낱말이다. 미국에서 1972년 낙수 대통령이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전국위원회 본부가 있는 ‘워터게이트’란 이름의 빌딩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가 발각된 사건인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유래하였다.

최규선게이트는 알려진 바와 같이, ‘미래도시환경’이라는 회사의 대표인 최규선씨가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체육복표사업 등 각종 이권사업에 참여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수수한 사건을 말한다.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하던 최성규 총경이 동남아와 미국 등으로 도피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배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6일자 내일신문에는 김대통령의 셋째 아들 홍걸씨와 최규선을 소개해 준 장본인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최규선게이트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연루의혹은 사실로서 보다 분명해 보인다.

최규선게이트는 최근의 국민경선을 통한 민주당의 기적적인 부활을 자칫하면 ‘도로아미타불’로 만들 수 있는 정치권의 핵폭풍과 같은 사안이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하면,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김대중과 노무현

민주당 국민경선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을 밀고 있다는 ‘음모론’이 이인제 후보에 의해 제기된 바도 있지만, 노무현의 정치인생에 있어 김대중 대통령을 결코 좋은 인연은 아니었다. 88년 13대 총선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밑에서 정치인생을 시작한 노무현은 90년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 이후, 김대중의 당에서 거의 매번 선거를 맞게 된다. 지역분열의 한 축이자 레드콤플렉스의 희생자인 김대중의 밑에 있다 보니, 노무현 또한 그 영향으로 선거에서 번번히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

95년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갑작스런 정계복귀 때문에, 2000년 총선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소식 때문에 선거 막판에서 결과가 뒤집히게 된 것이다. 노무현의 정치 행로에서 김대중은 결코 그에게 이득이 되지 못했다.

그러던 가운데, 노무현은 97년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그 대가로 민주당 최고위원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한다. 그리고 2002년 민주당 국민경선에서는 노풍에 김침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받을 만큼, 둘의 관계는 분명 나쁘지 않아 보인다. 2002년 12월, 우리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의 정치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규선게이트, 김 대통령이 해결해야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내에 자신 및 자신의 세 아들이 연루된 비리의혹 사건을 명확하게 밝히고 처리해야 한다. 이것을 은폐하거나 사과 몇 마디로 어정쩡하게 넘겨서는 안된다.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의 비리문제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퇴임 후에도 자신의 비리를 눈감아 줄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면, 그것은 민주당의 재집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설사 재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정권을 맡는 대통령에게 너무도 무거운 짐을 떠맡기게 될 것이다. 노무현 후보에게도 바란다.

“자신은 혼직 대통령을 비난하는 치졸한 여당 대선후보가 되지 않겠다”는 일면 멋있어도 보이는 말로, 김대중 대통령의 비리문제에 대한 추궁에 뒷짐지고 물러서서는 안된다. 노무현 후보가 작년 11월 이른바 ‘정풍’이라 불리웠던 ‘민주당 쇄신운동’에서 김대통령을 감쌌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전직 대통령의 비리문제로 정국불안을 겪어야 하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최재원님은 신문방송학과 98학번입니다. Daum에 <시사들이 대학생의 세상읽기>라는 이름으로 시사칼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olumn.daum.net/sisadori

●● 신문스크랩, ‘눈’을 선물해준다 – 이라크전쟁 보도를 통해본 국제관계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3개월 동안 꾸준히 신문의 국제면을 읽으면서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에 대하여 인식하고 국제 관계의 흐름에 대하여 파악했다. 3개월 동안의 스크랩은 국제 관계를 꾸준히 관찰하고 사건들에 대하여 비평하게 되는 눈을 가지게 해주었다. 처음에 국제면을 읽을 때는 주로 발생하는 사건, 그 자체에 관심을 두거나 앞으로 벌어질 사건들에 대해 예상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 국제면을 읽는 시각은 그 때와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우선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고 쉬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크랩을 하는 동안 많은 국제적인 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스크랩을 하는 중에 나의 관심을 가장 끈 것은 이라크 전쟁이라는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5월 1일 부시 미합중국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할 때까지 국제면의 핫이슈였을 뿐만 아니라, 5월 내내 종전 후의 이라크 재건 사업문제를 다루는 기사까지 다루어졌다. 이라크 전쟁은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나의 포커스를 변화시켜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나의 시각을 변화시켜준 이라크전

신문의 국제면을 스크랩하기 시작하는 날부터 이라크와 미국 사이에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전쟁의 명분은 이라크가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고, 이를 폐기하지 않는다는 것과 테러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이어 전쟁으로 3월 20에는 미국의 선제 공격으로 이라크에 전쟁이 시작되었고, 21일부터는 대규모 공습이 시작되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발표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하여 미국을 지지한다고 하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는 반전 시위와 반미 시위가 벌어졌다. 개전 6일째에 이라크 나시리아 시에서는 개전 이후 최대 격전이 벌어졌으나 미국의 우세로 이어졌다. 전쟁으로 인해 이라크와 미국의 군인뿐만 아니라 기자와 민간인의 피해가 속출했으며 세계의 경제를 위협했다. 4월 초순까지의 미군의 파상적인 폭격으로 이라크의 지휘부가 붕괴됨에 따라서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부시 미 대통령은 5월 1일 종전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의 실질적인 명분이었던 대량살상 무기를 찾아내지 못함으로써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비난도 결코 심각하게 드러나거나 오래 가지는 못했다. 이유는 상대가 절대 강국인 미국이었다는 것과 전후 복구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미국의 승리로 끝난 이라크 전쟁은 이라크의 전후 복구 문제라는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영국, 호주가 그 이권을 주로 차지할 것이라는 기사가 모든 신문에 실렸다. 또한 미국은 시리아, 이란, 북한 등에 다음 목표가 될 것이라는 위협을 안겨주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했다.

3월에 처음 스크랩을 시작했을 때의 이라크 문제는 취업을 준비하는 내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과 이것은 미국이 단지 자신들과는 뜻이 다른 이라크를 공격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든 장기전으로 가든 가뜩이나 취업하기 어려워지는 2003년도 상반기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며 이것은 곧 또 다른 취업 대란은 일으키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그래서 나의 반미 감정은 극에 치달았고 부시 미 대통령을 욕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런 한편으로는 연일 공중파 뉴스와 신문에서 보도되는 미군의 이라크 공습을 바라보기에 정신이 없었다. 영화 속에서 나 볼 수 있는 전쟁을 찾고 있었다. 또한 신문에서는 미군이 어떠한 무기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기사만을 주로 보고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았다. 물론 이라크 전쟁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공습과 반미 시위에 따른 경찰과의 충돌이 기사화 된 것에 눈길이 가고, 앞으로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가시화된 생각만을 하였다.

눈에 보이는 현상뿐 아니라…

4월에 들어서고 이라크 전쟁에 대한 기사를 계속 보면서 나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생각뿐만이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었다. 국제관계의 이해란 수업시간에 듣는 것과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라크에서 생산되는 석유에 대한 미국의 이권문제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이 내재돼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 미국의 정치노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나의 삶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던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였다. 클린턴 정부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문제가 부시 행정부에서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미국의 정권이 바뀐 후, 세계 정세는 아주 큰 영향을 받았는데, 과연 이것이 절대 강국인 미국의 최고 통치자가 바뀌었기 때문인가? 세계 평화를 위하는 것이 절대 강국의 힘으로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평화를 원하는 사람의 의지가 문제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신문 기사를 읽는 시각이 바뀌었다. 물론 눈에 자극적인 문구나 사진이 먼저 들어오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문구나 사진들을 보면서 사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이다. 부시 미 대통령이 시리아와 이란 등의 중동국가 들에게 테러범을 돋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면 테러문제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과연 미국은 이라크 문제 때처럼 이들 국가를 공격할 수 있는

●●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을 읽하다 – 내맘대로 글쓰기

나는 진정한 상상력을 가져 본 적이 없다.

햇볕은 거의 수직으로 모래위에 쌓아져 내리고 있었고, 바다위로 반사되는 그 빛은 견디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리고 나또한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그 커다란 분노가 나의 괴로움을 씻어주고 희망을 안겨주기라도 한듯 신호들과 별들이 가득찬 밤하늘을 앞에 두고, 나는 처음으로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에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것이다. 어제 본 실용영어 퀴즈 한문제에 조차 초연하지 않은 나, 이런 나를 혼란에 빠뜨린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알베르 카뮈다. 그의 말마다 매일 속옷을 갈아입는 사람이, 이런 작품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은 그가 한 말이, 사람은 먼지같은 존재라는 말이 틀렸음을 역설적으로 깨닫게 한다.

뫼르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나 그것은 자기탓이 아니고, 누구도 어머니가 죽은 걸 슬퍼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녀' 가 결혼하자고 하자,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그녀에 대한 사랑에는 무관심한 사람. 어느것도 어느 누구도 어머니도 옆집 늙은이의 병든 개도, 뫼르소에겐 '그저 그런 것, 대단치 않은 의미' 일 뿐이다. 이런 뫼르소와 세상사이의 유리. 이 기분나쁜 인간이야기를 왜 나는 계속 읽었던 것인가.

50년대에 '이방인' 이 우리 나라에 소개될 당시에 그랬듯, 하마터면 나도 이 작품을 단지 '허무주의'로만 볼뻔 했다. 그러나 소설을 읽을수록 카뮈의 글은 웬만해선 박수칠 줄 모르는 오만한 나의 손을 놀래켰고, 급기야는 궁정적인 충격을 주었다. 책을 읽는 내내 내 머리속을 떠다니던 생각은 주인공 뫼르소가 일면, 나와 비슷한 놈같다는 것이었다. 우유부단하나, 이를 장점인양 뻔뻔하게 살고 있으며, 세상을 감히 관조하여 드는 점이 말이다. 물론 나는 나와 나의 가족, 친구, 대~한민국과 베를린에 사는 릴리트에게까지 적지 않은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 뫼르소보단 그나마 낫지만. 그러나 난 뫼르소의 양태에서, 가끔씩 일상에서 한 발 물러서 공허한 비판을 하거나, 부러 고독을 섭었던 내모습이, 썩 좋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아차렸다.

태양을 견딜 수 없어서 저지른 살인. 그것은 철나의 감정의 격앙과 나를 포함한 모든것에 대한 무의힘으로 변명하려해도 용서받지 못할 '죄' 이지, 결코 다른 것은 될 수 없다.

세상에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 나에게, 요철거울을 비추며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 기특한 작품.

그리하여, 아무도 이방인일 자격은 없다. 아무도 '부조리' 와 '부조리하지 않은 모든것에 무관심할 자격은 없다.

장효민 기자 changhyomin@yahoo.co.kr / 02년 11월 23일 22:25 ©2002 외대학보

백년의 고독, 장미의 이름, 사슴벌레 여자, 죄와 사랑, 상실의 시대, 유리알 유희, 레오나르도다빈치처럼 생각하기.....재미게 읽었던 책에 대한 느낌을 새롭게하고,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지금 제 온몸이 맥주와 과일사라다라서 글이 별로 마음에 안들게 써졌어요.